

# 수요예배 및 구역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09월 21일(수) 저녁 7시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묵상기도 / 각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341장(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마태복음(마)16:21-28(신p.28)) 가족 중에서
- 말 씀 /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초청은 전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우주적인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속성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삶에 의욕을 가지며 선한 욕구를 성취해 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삶에 의욕을 가지며 선한 욕구를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에 못지 않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과다한 욕심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옳지 못한 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선 자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먼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자칫 이 말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를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자학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2.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성도에게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개성과 재능이 다르듯이 십자가도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심판날에 상급을 내리실 것이며, 포기하

는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급과 심판을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즐겨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 3.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 배울 수 있으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고, 심하면 중간에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심으로 끝내는 십자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만을 바라보고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타인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자기의 욕심을 바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십자가가 자기의 유익과 결부된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 4. 예수님을 부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고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그것을 바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결단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하는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느냐 잃게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아 주님을 위하여 나를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획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 언약의 축복으로 누리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2.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3. 조합과의 합의안대로 잘 마무리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4. 새 정부가 통치를 잘하게 하시고, 각 지방의 새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소서.
5.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자유와 진리가 이기게 하소서.

## ● 마무리 기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양/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기도문: 다같이